

# 매일묵상일기

## 가정예배

매일묵상일기 · 가정예배자료

주님의 얼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.

2025년 6월 30일(월)

- 찬송 ..... ( 208장 ) ..... 다함께
- 기도 ..... 가족 중에서
- 성경 ..... ( 시 84:1~12 ) ..... 다함께

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(시84:1)

- 묵상자료 ..... 인도자

시편 84편은 ‘만군의 여호와’라는 호칭이 1, 3, 8, 12절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.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, 시를 쓸 당시의 상황이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전시(戰時)처럼 급박한 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생과 사가 왔다갔다하는 전쟁시에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.

2절을 보십시오. “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” 시인은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, 몸조차 쇠약해졌다고 고백합니다. 여러분, 누군가를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해본 적 있으신지요? 상사병이라고 하지요. 누군가 너무 사모하여 열병이 생기고, 시름시름 앓게 되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게 됩니다.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을 그 정도로 사모했다는 것입니다.

3, 4절을 보십시오. “나의 왕, 나의 하나님,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” 시인은 지금 주의 제단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지만, 참새나 제비는 주의 제단 근처에 집을 짓기도 하고, 마음대로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으니,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‘주의 집’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전심으로 찬송하는 교회이지요. 시편 84편을 쓴 시인의 마음으로 본다면,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.

그리고 유명한 구절이지요. 6절입니다. “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” 시온의 대로를 지나기 위해서,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‘눈물 골짜기’가 있습니다.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. 모두가 다 시기와 상황이 다르지만,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시고, 하나님께서 샘을 준비하시고, 이른 비를 준비해주신다는 고백이지요. 곧 눈물골짜기를 잘 건너갈 수 있는 힘과 복을 주신다는 고백입니다. 눈물골짜기를 다 지나가고 보면 그 길이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,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복의 또 다른 면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어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이고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.

어찌면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.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우리의 최종목적지는 결코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을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. 지금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궁정입니까? 시온의 대로입니까?

- 기도 ..... 인도자

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샘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.

-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..... 다함께